돌아온 투·타 에이스 부탁해~ 어게인 2009

KIA 선수·코치진·스태프 40명이 뽑은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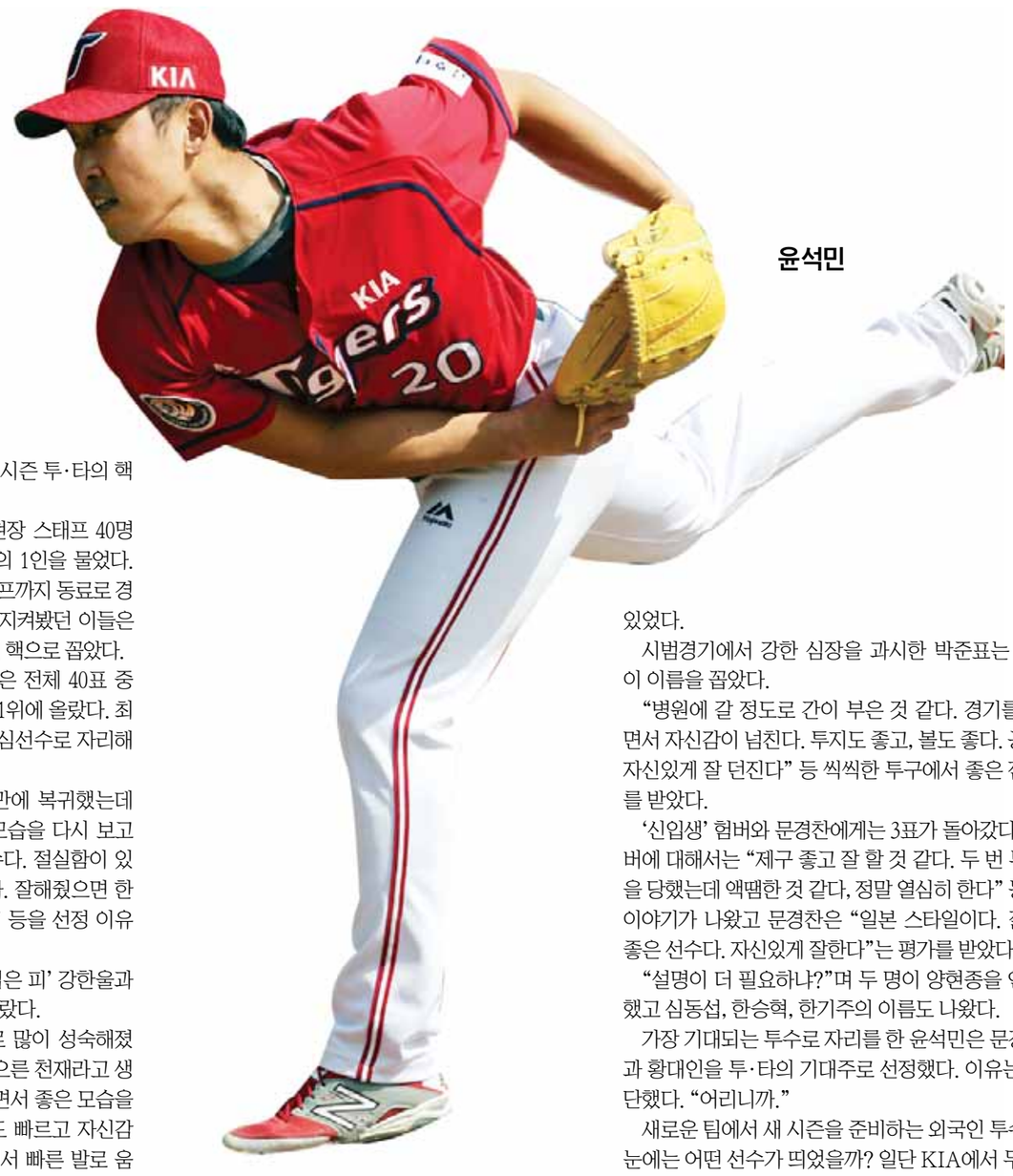
14표 얻은 최희섭 타자 부문 1위

투수 부문 11표 받은 윤석민 1위

강한울·황대인 6표씩 얻어내 2위

투수 기대주 임준혁 7명이 선택

최희섭



윤석민

돌아온 그들이 호랑이가 뽑은 올 시즌 투·타의 핵이었다.

KIA 타이거즈의 선수·코치진·현장 스태프 40명에게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투·타의 1인을 물었다. 마무리 캠프에서부터 지난 스프링캠프까지 동료로 경쟁자로 또 관찰자로 선수단 면면을 지켜봤던 이들은 최희섭과 윤석민을 2015시즌 전력의 핵으로 꼽았다.

◇**만회의 시간, 최희섭**=최희섭은 전체 40표 중 14표를 얻으며 야수진의 기대 선수 1위에 올랐다. 최희섭의 복귀를 반기면서 타선의 중심선수로 자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컸다.

최희섭을 지목한 14명은 "오랜만에 복귀했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2009년의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기술은 설명이 필요없는 선수다. 절실함이 있어서 기대된다. 해줘야 하는 선수다. 잘해줬으면 한다. 캠프 잘 치렀고 힘이 남다르다" 등을 선정 이유로 들었다.

내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젊은 피' 강한울과 황대인은 각각 6표로 공동 2위에 올랐다.

대졸 2년차 강한울은 내외적으로 많이 성숙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한울은 "게으른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캠프에서 정말 열심히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해 경험도 있고 발도 빠르고 자신감도 생긴 것 같아서 기대된다. 2번에서 빠른 발로 움직여주면 타순의 흐름이 좋을 것 같다" 등의 기대를 받았다. 강한울 자신도 "시즌 준비를 잘했다"면서 본인에게 한 표를 행사했다.

고졸 신인인 황대인도 선배들이 기특하게 생각하는 씩씩한 '막내'였다. 선배들은 "공격적으로 잘할 것 같다. 씩씩하게 잘하고 있다. 어린 선수라서 성장세가 빠르다" 등의 설명과 함께 황대인을 언급했다.

베테랑 이범호와 김원섭은 각각 4명의 지지를 받았다. 이범호는 책임감, 김원섭은 성실함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범호에게는 "캡틴이다.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준비 잘했고 팀의 주장으로 책임감이 크다"는 평가가 따랐다.

김원섭을 언급한 이들은 "지난해부터 준비과정이 가장 좋다. 몸을 잘 만들었다. 준비를 잘했다. 외야에서 좋은 활약을 해줄 것 같다"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외에도 김다원, 나지완, 박준태, 최용규, 이인행의 이름이 언급됐다.

야수 1위에 오른 최희섭은 각각 윤석민과 김원섭을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인물로 지목했다.

◇**에이스의 귀환, 윤석민**=어느 해보다 고르게 표가 나온 이번 시즌, 윤석민은 11표를 받으며 투수 1위가 됐다.

최희섭과 마찬가지로 "돌아온 에이스다. Long time no see(오랜만이다). 외국에서 고생도 하고 더 성숙해졌을 것 같다. 기대된다. 복귀했으니까. 밸런스가 좋다" 등의 이야기로 윤석민의 복귀에 대한 반가움과 기대감을 보였다.

가장 꾸준한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임준혁도 7명이 선택한 올 시즌 핵심 멤버다.

선정 이유는 "제구가 많이 좋아졌다. 슬라이더도 위력적이다. 기술적으로도 향상됐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됐다. 성실하게 준비를 했다. 가장 열심히 꾸준히 한 선수다. 야구에 눈을 떴다" 등이 있었다.

지난 스프링캠프의 '샛별' 임기준도 6표로 인기를 과시했다.

"로테이션을 잘 지켜준다면 좌완 라인이 강해질 것이다. 공을 못 칠 것 같다. 군대 다녀와서 첫 1군이다. 씩씩하게 잘 던진다. 왼손 기대주다"는 평가가 있었다.

시범경기에서 강한 심장을 과시한 박준표는 5명이 이름을 꼽았다.

"병원에 갈 정도로 간이 부은 것 같다. 경기를 하면서 자신감이 넘친다. 투지도 좋고, 볼도 좋다. 공을 자신있게 잘 던진다" 등 씩씩한 투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신입생' 험버와 문경찬에게는 3표가 돌아갔다. 험버에 대해서는 "제구 좋고 잘 할 것 같다. 두 번 부상을 당했는데 액땜한 것 같다, 정말 열심히 한다" 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문경찬은 "일본 스타일이다. 젊고 좋은 선수다. 자신있게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설명이 더 필요하냐?"며 두 명이 양현종을 언급했고 심동섭, 한승혁, 한기주의 이름도 나왔다.

가장 기대되는 투수로 자리를 한 윤석민은 문경찬과 황대인을 투·타의 기대주로 선정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어리니까."

새로운 팀에서 새 시즌을 준비하는 외국인 투수의 눈에는 어떤 선수가 띄었을까? 일단 KIA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맞게 된 필은 임준혁과 김다원에게 표를 행사했다. 스틴슨은 박준표와 최희섭을 언급했고, 험버는 임기준과 황대인을 꼽았다. 험버의 지지를 받은 황대인은 험버를 언급하기도 했다.

팀 최고의 강심장으로 주목받은 박준표는 역시 씩씩함으로 어필하고 있는 심동섭과 황대인을 선택했다.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고, 잘하고 싶다며 자신의 이름을 외친 이들도 있었다.

호랑이가 뽑은 '호랑이'가 된 최희섭과 윤석민은 동료의 선택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희섭은 "이렇게 기대해주시고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기대해주시는 만큼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아주 작은 것부터라도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석민은 "뽑아주셔서 감사하다. 그만큼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끔 잘하는 것 말고는 다른 말이 필요없는 것 같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선수들이 뽑은 올 시즌 마운드의 핵 윤석민(가운데). 임준혁(오른쪽)과 양현종도 올 시즌 마운드를 이끌어갈 중심 선수로 주목을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